

‘베어벡호’ 실질적 데뷔전

내일 중동 강호 이란과 아시안컵 예선전

박지성 등 해외파 7명 불러들여 총력전

괌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일 오후 8시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중동의 강호 이란과 2007 아시안컵 예선리그 B조 3차전을 치른다.

시리아, 대만을 차례로 꺾어 2연승으로 조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은 2위 이란(1승1무)과 저를 이번 맞대결이 본선 진출권 확보의 중대 기로다. 승리하면 조 1, 2위에게 주어지는 본선행 티켓 확보가 수월해지지만 안방에서 패다면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시리아(1승1무1패)가 이란 원정에서 1-1 무승을 거두는 등 복병으로 떠 올라 자칫 납은 일정이 고단해질 수 있다.

지난 16일 대만과 2차전을 통해 한국 사령탑으로 선을 빙 베어벡 감독이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설기현(레딩 FC), 이영표(토론판) 등 유럽 빅리거들을 포함해 해외파 7명을 불러들이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만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44위의 약체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52위)보다 앞선 이란(45위)과 대결은 그의 진정한 능

력을 보여줄 실질적인 데뷔전이다. 소집 명단에 포함됐던 차두리(마인츠)가 부상으로 제외되고, 이영표 역시 대표팀 합류 직전 AS 로마 이적 무산 등으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이지만 베어벡호 태극 전사들은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특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박지성, 설기현을 비롯해 일본 J-리그에서 3경기 연속골의 고감도 골감각을 이어온 조재진(시미즈), K-리그에서 이 름값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이천수(울산), 정조국(서울) 등 공격 라인의 최상의 컨디션으로 연일 매서운 화력을 뿜어내며 베어벡호의 이란 사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은 이란과 역대 국가대표팀 간 맞대결에서 8승3무7패로 백종세다. 최근에는 지난해 10월 12일 서울로 불러들여 조원희(수원), 김진규(이와타)의 연속골로 2-0으로 승리한 적이 있다. 딕 아드보카트 감독의 데뷔전이었다.

이란도 한국전 필승의지가 엿보인다. 방한 멤버에 간판 스타 알리 카리미(바이에른 뮌헨)를 비롯해 바히드 하세미안(하노버),



레만 레자에이(메시나), 자바드 네쿠남(오사수나), 메디 마다비키아(함부르크) 와 30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볼튼에 공식 입단한 미드필더 안드라니크 테이무리안 등 유럽과 모두가 포함됐다. 이란 역시 베어벡호에 무릎을 꿇는다면 아시안컵 본선행을 장담하기 힘들어져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이란 어떤 팀?

FIFA 랭킹 45위...한국보다 7계단 앞서

역대전적 한국이 8승 3무 7패 약간 우위

이란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45위로 호주(38위)에 이어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에 올라 있는 강호다.

한국(52위)보다 7계단이나 앞서 있고 일본(48위)보다도 우위에 있다.

4-4-2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탄탄한 수비와 빠른 미드필더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란은 2006 독일월드컵에서는 멕시코, 앙골라, 포르투갈과 함께 D조에 속해 1무2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이란축구연맹은

구겼다. 이 때문에 갈리노이에 감독은 한국을 반드시 이겨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각오다. 30일 새벽 입국한 이란 대표팀의 면면에서도 갈리노이에 감독의 의지는 그대로 드러난다.

훈련을 비공개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선수 명단도 발표하지 않는 등 전력을 숨기고 있는데 간판 스타 알리 카리미(바이에른 뮌헨)를 비롯해 바히드 하세미안(하노버), 레만 레자에이(메시나), 자바드 네쿠남(오사수나), 메디 마다비키아(함부르크), 안드라니크 테이무리안(볼튼) 등 유럽과 6명이 모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전적에서는 한국이 18전 8승3무7패로 박빙의 우위를 지키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왜? 본인이 거부

이영표 AS로마행 무산



합의했음을 적시한 29일 새벽 날아왔다. 이젠 영표와 AS 로마만 남은 끝이 됐다. 지센은 AS 로마에 대략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뒤 김동국 대표가 지난달 29일 급여 출국했다.

갈리노이에 감독은 데뷔전이었던 지난 8

일 아랍에미리트(UAE)와 평가전에서 1-0 승리를 거뒀지만 16일 2007 아시안컵 예선

시리아와 홈 경기에서는 1-1로 비겨 체면을

놓았던 김동국 대표는 “양 구단은 물론 선수 측과도 계약에 합의했는데 선수 본인의 거부로 이적이 결렬됐다. 협상 과정에는 이견이 없었음을 명확히 하라. 그렇지 않으면 강경 대처하겠다”고 밝혀 지센은 30일 늦은 시간 “선수 개인적 사정으로 이적이 무산됐다”는 밝표를 하게 됐다.

이에 AS 로마 구단은 “양 구단은 물론 선

수 측과도 계약에 합의했는데 선수 본인의

거부로 이적이 결렬됐다. 협상 과정에는 이

견이 없었음을 명확히 하라. 그렇지 않으면

강경 대처하겠다”고 밝혀 지센은 30일 늦은

시간 “선수 개인적 사정으로 이적이 무산됐다”는 밝표를 하게 됐다.

이영표는 국가대표팀 합류를 위해 29일

입국할 예정이었던 터라 지센 측은 난색을 표한 뒤 일단 두 구단 간 이적에 합의했다는

공식 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적에



“종교적 이유 결코 아니다 영국 잔류가 좋다고 판단”

■ 이영표 귀국 인터뷰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1부리그) AS 로마 이적을 거부한 이영표(29·토론판)는 지난달 31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마음을 바꾼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영표는 이날 오후 런던발 대한항공 908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 청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종교문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AS 로마는 세계 모든 선수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팀이다. 마음을 바꾸기까지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영표는 “축구만 생각한다면 로마로 가는 게 낫겠지만 축구선수 생활 이후의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영국에 남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지금도 내 판단이 옳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이영표는 “축구만 생각한다면 로마로 가는 게 낫겠지만 축구선수 생활 이후의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영국에 남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지금도 내 판단이 옳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이영표는 “축구만 생각한다면 로마로 가는 게 낫겠지만

샤라포바 백핸드 리시브

러시아의 미라샤 샤라포바가 지난달 31일 뉴욕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 여자부 단식에서 네덜란드 미켈라 크라젝크의 공격을 백핸드로 받아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페더러·나달·모레스모 2회전 안착

여자부선 킹기스·윌리엄스도 합류

US오픈 테니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세계랭킹 1위·스위스)와 ‘원손 천재’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 ‘여전사’ 앤리리 모레스모(1위·프랑스)가 총상금 189억원이 걸린 US오픈에서 2회전에 안착했다.

페더라는 지난달 31일 뉴욕의 빌리 진 킹 내셔널테니스센터에서 벌어진 단식 1회전에서 와예추(109위·대만)를 3-0(6-4 6-1 6-0)으로 가볍게 제치고 대회 3연패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페더러의 강력한 경쟁자인 나달도 왕년의 강서버 마크 필리포시스(113위·호주)를 3-0(6-4 6-4 6-4)으로 완파하고 2회전에 올랐다.

3위 일반 큐비치치(크로아티아)만 1회전에서 고배를 머셨을 뿐 남자부에서는 대부분의 상위 킹카가 이번 없이 2회전에 진출했다.

여자부에서는 올해 호주오픈과 월드컵에서 우승한 모레스모가 1회전에서 크리스티나 바로이스(131위·독일)를 2-0(6-1 7-5)으로 물리치고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1999년과 2002년 이 대회 정상에 올랐던 ‘흑진주 자매’의 동생 세레나 윌리엄스(91위·미국)도 1회전을 기록했다. 윌리엄스는 무릎 부상으로 한동안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경기에 불참하는 바람에 랭킹이 90위권까지 추락했다.

다음달 한솔코리아오픈 참가자 한국을 방문하는 ‘알프스 소녀’ 마르티나 킹기스(9위·스위스)는 중국의 펑슈웨이(60위)에게 2-1(4-6 6-1 6-3)로 역전승을 거두고 2회전에 합류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